

I. 과업 개요

1. 과업 개요
2. 과업 배경 및 효과
3. 세계유산 등재 비전

I. 과업 개요

1. 과업 개요

- 과업명
피란수도 건축·문화자산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가치 발굴 연구
- 목적 : 6.25전쟁기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사업
- 과업기간 : 2016년 6월 ~ 2017년 6월(12개월)
- 과업대상 : 부산시 전역의 피란수도 전·후기 유산
- 수행기관 : 부산발전연구원, 경성대산학협력단

2. 과업 배경 및 효과

1) 국내 배경

- 개발시대 사라져 가는 근대(modern)유산의 가치 재발견 사업 확산
 - 국내 개항도시와 산업도시들 사이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근대 유산에 대한 재조명 및 활용에 대한 지역사회의 논의 증가
- 냉전기 발생한 6.25전쟁 당시의 피란수도 부산의 장소성과 가치 재조명
 - 임시수도였던 부산의 장소에 얽힌 서민들의 삶과 그 기록들, 그리고 이에 덧붙여진 건축물들의 보존과 가치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
 - 당시 긴급히 활용된 건축유산들의 현재적 활용에 대한 기대감 고조
- 살아있는(living) 도시유산은 현재적 활용성과 미래 교육의 소재
 - 건축물은 외형적 특성 뿐 아니라 그에 포함된 상징적 의미와 건축적 조형미가 학술적 접근의 대상이 됨
 - 미래 세대들에게 기억 유산과 그 의미 전수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원동력임

2) 국제 배경

- 국제적인 평가가 가능한 냉전기 전쟁의 의미와 국제사회의 평화적 상징성 제공
 - 냉전의 결과물이자, 현존하는 이념 대립적 구조의 현장에서 보존되고 있는 냉전기 유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존·관리의 필요성 역설
- 도시유산과 근대유산 보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확대
 - 과거 문화재 보존 차원의 유산관리에서 도시발전에 의한 개발 논리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근대유산의 보존 관리와 이를 등재하고자 하는 추세가 증가함
 - 2015년 등재되었던 일본의 메이지 근대산업유산도 강제징용 등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, 아시아의 근대화를 촉진한 근대유산의 가치로 등재 결정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
- 최근 전쟁으로 인한 국제적인 난민들의 이동은 디아스포라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, 국제적인 난민 분쟁 해결의 국제사회 공조의 모델로서의 한국사회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됨
 - 6.25전쟁기 수백만명의 자발적인 난민들이 움직이고, 이를 긴급하게 수용한 도시의 어려움에 국제사회의 구호와 원조, 지원과정 등의 전형성을 보여줄 수 있음
 - 국제 사회의 지원을 통한 성장 국가가 세계적인 지원 국가로 변모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설명할 수 있는 도시유산의 전형을 보여줌

3) 도시공간과 사회문화적 배경

- 전쟁이라는 긴급함속에서 도시공간구조와 기능적 배치를 통한 수도공간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도시 공간 구성의 모델임
 - 주요 이동의 통로였던 도심 연안부, 기존 도심기능의 중심성을 강조한 도심 내륙부, 피란민의 수용과 정착지였던 산지부의 공간배치의 체계적인 탐색 가능
 - 사회적 포용의 실천을 통한 현지인과 피란민들의 공존의 생활양식을 설명함
- 기존 건축물의 기능이나 용도를 충분히 인지하고, 전쟁이라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활용된 긴급 활용자산(Emergency use Assets)의 성격과 의의가 강조됨
 - 문화적 필요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역사자산을 긴급히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·문명적 접변의 흔적을 재조명
 - 기존 등재된 유산들은 문화재적 가치를 보존관리하고 있는 고대 유적이나 중세 건축물들이지만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은 도시유사이자 지금도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'살아있는 유

산'(living heritage)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음

- 도시의 재생의 가치는 사람중심의 재생이어야 하며, 이의 실천은 장소(건축)와 문화(사람)가 결합되어야 도시의 원래적 가치가 되살아남
 - 보존·창조·참여 기반의 도시재생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문화와 결합된 전통의 가치 보존 및 보전이 필요하며,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생의 패러다임도 전환될 필요가 있음
 - 글로벌 기준에 맞춘 보존형 도시유산의 모델을 제시하고, 군산, 목포, 인천 등 타 도시에 근대유산 보존의 가능성과 가치 보존의 협력을 이끌어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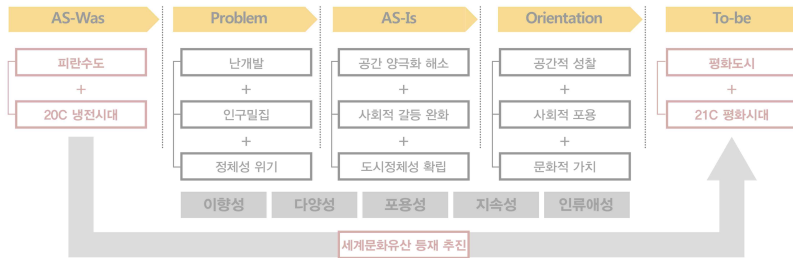
4) 세계유산 등재의 실용적 효과

- 인류공동의 보존가치가 있는 세계유산 등재의 의미를 실천하고 국제사회의 기준을 지켜가는 문화 보존국가 한국의 위상을 증명함
-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국제적인 기준의 보존관리의 전형을 실천하고, 이의 활용은 교육, 문화재의 보 등의 직접적인 효과와 정체성 확립 및 관광효과외의 부차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음
-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 및 국제적인 관리 보존 프로그램에 의해 유지됨으로써 개발압력 등에 의한 문화유산 훼손을 철저히 막을 수 있음
- 세계유산 등재 도시 시민은 세계적인 유산을 가진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보유하고, 이를 실천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위상을 가짐
-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보존형 유산 관리체계를 가지고,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해 줌
- 도시브랜드 제고 및 도시 위상의 강화는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이미지 개선효과를 가짐

3. 세계유산 등재 비전

“피란수도에서 평화도시로” 난민문제 해결의 역사적 성공 사례

- 20세기 냉전시대의 피란수도를 21세기 평화시대의 평화도시로 부각함
- 6.25전쟁으로 인한 부산의 난개발, 인구밀집, 정체성 위기 등의 문제를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공간 양극화의 해소, 사회적 갈등의 완화, 도시정체성을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공간적 성찰, 사회적 포용, 문화적 가치의 창출을 목표로 함
- 냉전의 참혹한 전쟁을 국제적 원조와 지원으로 극복하고, 이제는 국제적 원조를 하는 나라로 우뚝서게 된 근본적 계기가 된 피란수도의 국제적 의미를 적극 부각하고자 함
-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유산 등재를 시도하는 근대유산, 광범위한 기능적 연계 속에 분포되어 있는 도시유산, 아직도 적극 활용되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, 21세기 탈냉전기에 최후로 남아있는 냉전기 유산, 국제적 평화가 더욱 갈망되는 이 시기에 되짚어 보는 전쟁유산, 수많은 피란민들을 포용한 피란유산의 의미를 적극 부각하고자 함
- 특히,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수용의 성공적 사례로서 피란수도를 재조명하고자 함



<그림 I-1> 세계유산 등재 비전